

천연식물자원 국제 협력 체계 구축

전북대, 미안마 다곤대학 역량강화 추진 유용식물센터 설치... 식물자원 교육·연구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안마 다곤대학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원사업은 국내 대학이 개발도상국 대학들의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 간 교류를 통해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북대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4년 동안 총 16억원을 지원받아 한약자원학과 방극수 교수가 중심이 돼 미안마 약용식물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 기술보급 사업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대는 지난해 다곤대학과 협력, 유용식물센터를 설치해 교수와 대학원생, 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와 산업화 지원을 하며 이곳이 유용식물자원의 증식과 활용 연구의 메카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천연자원 부족 중 하나인 미안마는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문 인력 부재로 식물 유전자원의 보존과 활용에 그간 어려움을 겪

어왔는데, 이 연구센터가 다양한 약용식물자원을 연구하는 플랫폼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실제로 이 센터가 활발히 운영되면서 미안마 전체 대학의 식물학과 교수들이 이곳을 찾는 등 현장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국제개발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전북대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단은 2차 년도인 최근 다곤대학 식물학과에 전북대가 설치한 것과 유사한 스마트 강의실 2곳을 만들어 기부했다. 미안마 대학 최초의 스마트 강의실인 이곳은 세종대왕을 지지하는 '세종홀'과 전북대를 상징하는 '건지홀'로 각각 명명돼 한국과 전북대를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하게 됐다.

최근 다곤대학에서는 이 스마트 강의실에서 미안마 식물학 전공 교수들이 준공을 기념한 컨퍼런스를 열어 140여 명의 식물학 전문가들이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미안마 현지 유력 언론 역시 전북대의 스마트 강의실이 미안마 교육과 연구 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며 크게 주목했다.

또한 전북대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단은 미안마 다곤대학 졸업생 2명을 전북대 박사과정이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극수 교수는 "이 사업이 미안마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과 연구 역량강화는 물론, 우리나라와 공동



전북대학교가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안마 다곤대학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로 미안마 유용 식물자원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의 플랫폼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며 "우리의 활동이 선진 과학기술의 보급은 물론, 우리나라와 전북대의 위상을 높인다는 사명감을 갖고 미안마의 교육체계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첫걸음지원학교 134곳 대상 워크숍 실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2일 오전 2층 강당에서 2019년도 초등학교 2학년 첫걸음지원학교 134개교(사전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계획 안내 및 워크숍을 가졌다.

첫걸음지원학교란 초등학교 2학년 입문기 시기의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정 시간을 중심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학교다.

학습더딤 진단 시기인 초등 3학년 이전에 학습결손 조기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학교 요구가 증가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쓰기·셈하기 관련 교과인 국어, 수학 시간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수준

이해 지원 및 기초적인 문해력 등 수준별 1대 1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018년 첫걸음지원학교 69개교에서 올해 134개교로 확대 지원하며 10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습더딤을 예방하고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워크숍에서는 ▲업무 담당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 안내 ▲운영 학교 사례 공유로 학교별 적용 방안 모색 ▲사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맞춤형 학습과 다양한 수업활동 안내 등을 통해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지난 21일 군산 중앙고 RICE응급처치동아리 학생들이 대이면에 소재한 금호엔비텍을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인권교육 활성화 모색 유은혜 "한유총 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단호 대응"

전북교육청, 감사단 워크숍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19 인권교육 감사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이틀간 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인권교육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인권교육 감사단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내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인권교육 추진 경과보고 및 정책을 안내하고, 인권교육 실제 등을 주제로 한 감사 교육, 영역별 인권교육 특강 및 협의, 향후 인권교육 감사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인권교육과 노동인권교육 분야별 과정안 나누기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규 인권교육 감사 모집도 진행한다. 인권교육 감사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감사 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회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워크숍 당일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관련 부처도 공정거래 위법성·탈루 혐의 등 예의주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격렬히 반대하며 25일 총괄기대회를 예고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2일 "불법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경고했다.

교육당국과 3개 관련 부처도 공정거래 위법성과 탈루 혐의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한유총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부처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한승희 국세청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에듀파인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획기적으로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올해 의무가 아닌 유치원 중에서도 100여 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줬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

로 에듀파인은 올해 3월부터 원아 200인 이상 대형 유치원에 의무 적용된다. 200인 미만 유치는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유감스럽게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 휴·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집단 휴·폐원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불법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유총 소속 모든 유치원이 현재 한유총 집단 행동 결의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육자로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 개최 과정에서 한유총 내부에서는 찬반 표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교육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모두 한유총 차원에서 불법성이 드러나면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연포를 냈다.

/뉴시스

"위급상황 시 당황하지 마세요"

군산 중앙고 응급처치동아리, 재능기부 '귀감'

군산 중앙고등학교 RICE응급처치동아리(지도교사 정성민) 학생들이 지역 내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긴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교육 등의 재능기부를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강민서(중앙고 3년)군을 비롯한 응급처치동아리 학생들은 대이면에 소재한 금호엔비텍(대표 이자태)을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AED) 사용법, 파라코드(생명 끈) 매듭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어린 학생들이지만 오늘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새벽 인적이 드문 곳에 후시라도 위급한 상황의 주민들을 보게 되면 요긴하게 써 먹을 수 있을 거 같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응급처치동아리 강민서 학생은

"오늘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은 위급상황 시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언제라도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학습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RICE응급처치동아리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이후 대두된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안전과 관련된 직업(의사, 간호사, 군인, 소방 등)을 희망하는 중앙고 3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결성했다.

또한 동아리 학생 전원이 응급처치법 일반과정을 이수하고,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전문 과정을 추가로 이수했으며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